



연세대학교 대나무숲

2분 전 

연대숲 #12345번째 외침:

2017. 03. 15. 오전 00:00:00

야, 쓰레기만도 못한 **야. 내 이름으로 투비트 하니까 재밌디? 술 맛이 좀 나디? 흥이 좀 돋더냐?

너네는 정말로 모여서 투비트밖에 한 게 없다고, 고작 이름 두 글자 말한 것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며.

그래, 그랬겠지. 내가 너랑 사귀다가 헤어진 후부터, 이미 수 년 전에 너네들 사이에 모든 걸 남김 없이 공유해서 이젠 더 말하고, 들을 것도 없었겠지. 그래서 술 마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, 그냥 심심하니까, 마침 서로 전여친들이 누군지, 둘이 뭘 했는지, 어쩌다 사귀고 어쩌다 헤어졌는지, 그 여자애들이 얼마나 **이었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니까, 투비트나 하고 놀자 했겠지. 이쯤되면 니가 너무한 거 아니냐? 역겨운 **야, 그날, 그 술자리에서 투비트밖에 안 했다는 니들 말은, 그래서 믿는다.

너랑 니 친구들, 다들 얼굴 되게 좋아보이더라. 전날 밤에 내 이름으로 투비트 해놓고 내 앞에서 잘도 쳐웃고, 떠들고, 나한테 말도 걸고, 대단하다. 내 얼굴 보면, 양심의 가책 같은 거, 그런 것도 없었니? 니들, 그 * 같은 단톡방에서, 요즘엔 니들 복학하고 과방에서, 니들끼리 하는 얘기들 절대 안 까발려질 줄 알았지? 그래서 니들끼리 무려 ^ 소속감^도 갖는다며? 어쩌냐 이렇게 까발려져서.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니?

교수님은 니들이 잘못된 거 모두 인정하고, 순순히 사과했다고, 우리 과 남학생들은 순한 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. 심지어 교수님한테 따로

찾아가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했다며. 강약약강 오진다. 나한테는 안 미안하냐? 엉뚱한 데에다 사과하고 있어 짜증나게. 니들, 반성한척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.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면 적어도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 따위 쳐누르진 못했겠지. 내 앞에서 하하호호 쳐웃지도 못했을거고. 너랑 니 친구들은, 니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해왔는지 모르나봐. 니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지. 멍청한 **들.. 너 때문에, 너랑 헤어지고 나서, 학교 갈 생각에, 니가 떠들어 놓은 온갖 얘기를 듣고 나를 볼 사람들 생각에 나는 등교길이 매일 같이 * 같아. 지금까지 내가 입다물고 있던 건, 한때 사귀었던 사람한테의 예의를 지킨 거였지, 너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야. 니가 우리 사이에 있던 일들을 어떻게, 어디까지, 누구한테까지 떠들고 다닐지, 그게 무서웠던 거야. 켕기는 게 있어서 무서웠던 게 아니고, 오히려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너고, 쪽팔려야 할 사람은 난데, 정작 니가 니 입으로 떠들고 다니니까, 어이없게도 나만 조심한 꼴이 됐네.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, 진심으로 안 쪽팔리냐? 나는 너랑 연애한 것 자체가 너무 쪽팔려 죽겠는데. 연애는 둘이 했는데, 예의는 나만 지키고, 내 연애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과 모든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됐더라. 상식적으로 퍼지지 않아야 할 부분은 비밀로 남을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가 너무 순진했던거 같다. 불쌍한 나 * ...

네 지금 여자친구는, 너네 둘이 헤어지면 자기 이름도 어느 술자리에선가 트위터로, 안주거리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란거, 알고있냐? 마주칠 때마다 불쌍해 죽겠다. 물론 너 말고 네 여친^^ 좀 짜져살아 제발. 니들이 하는 농담, 장난, 하나도 안 멋있으니까 세상 쿨한 척 좀 그만해. "야한 농담도 잘하는 남자다운 선배", "아슬아슬한 농담을 재밌게 하는 선배" 라고 생각하냐? 여자애들 앞에서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? 후배들도 니들 어떤 인간들인지 다 아니까

애들 물들이지마. 찌질해

한때 너랑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었어. 그래서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들, 니가 안 지키더라도 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, 그 모든 것에 대해서, 이게 네 대답이라니.

나는 네 트로피가 아니야. 나와의 연애를 네 수집함에 넣어두고, 니들 술자리가 지루해질 때마다 꺼내서 전시하지마. 니가 나랑 연애를 했다고 해서, 내 이름을 그딴 식으로 불러도 된다고 한 적 없어. 여태껏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 안해.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실망이다.

이거 좀 보고, 욕 많이 먹고(물론 오래 살라는 건 아니야ㅎ),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주위에 얼쩡거리지 않는게 좋을 거야. 이제 안 숨을 거거든. 너 때문에 과방도 한 번 못 가봤는데, 앞으로 너랑 네 의리짱짱 친구들 때문에라도, 께심해서라도 과 행사 올출석 해보려고. 숨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?

아직도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려나?

법 블레스 유다 ***아

(위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제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)

연세대학교 제28대 총여학생회 Around

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2차가해의 발생 시
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